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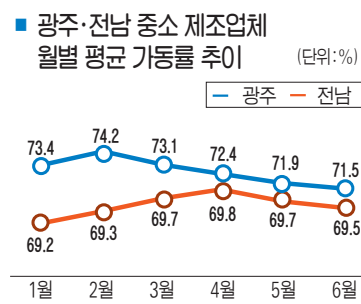
공장 멈추는 날 늘었다

광주·전남 6월 가동률 71%... 지난해 7월 이후 최저

광주·전남지역 중소제조업체 평균 가동률이 올해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역 중소제조업체 107개사를 대상으로 '생산설비 평균 가동률'을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중 지역 중소제조업체 평균 가동률은 70.5%로 전월(70.8%)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7월 70.1%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다. 정상가동률(80%)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전국 평균 가동률 70.8%보다도 0.3%포인트 낮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71.5%, 전남이 69.5%로 전월(71.9%, 69.7%)보다 각각 0.4%포인트, 0.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올해 1월 20개월 만에 70%대 아래로 떨어진 이

후 줄곧 69%대에 머물러 있다.

규모별로는 소기업(70.0%→69.8%)은 소폭 하락했고, 중기업(75.2%→77.0%)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지역 정상가동업체 비율은 38.2%로 전월에 비해 0.2%포인트 떨어지면서, 전국 평균과는 0.9%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평균 가동률 하락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내수 판매부진과 일부 전자제품 수출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박정호기자 jwpark@kwangju.co.kr

자동차 보험료 또 내린다

9~10월 2%대 추가 인하... 대형·외제차는 제외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4월에 내렸던 자동차보험료를 오는 9~10월에 일제히 평균 2%대 가량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을 돌입했다.

이들 손보사는 7월까지의 손해율을 검토한 뒤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대 정도 내리는 방안에 대한 요율 검토를 보험개발원에 의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요 손보사의 자동차보

험료 인하 발표는 내달 중에 나오고 9~10월 신규 자동차보험 가입자부터 인하된 보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차종별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료 인하 때와 마찬가지로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와 다인승(7~12인승) 승합차에 보험료 인하 혜택을 집중할 방침이다. 2000cc 이상 대형차와 외제차는 제외된다.

지난 4월에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2.5% 내렸기 때문에 이번엔 평균 2%대를 내리면 올해에만 보험료가 평균 5% 가까이 인하되는 셈이다. 자

동차보험료가 1년에 2번이나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짐에 따라 인하 가능성을 보고 있다"면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보험료 인하를 시사했다.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LIG손보도 "자동차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긴 만큼 업계의 전반적인 추세에 따를 것"이라며 보험료 인하에 동참할 의지를 내비쳤다.

금융 당국의 강한 압박도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내릴 수밖에 없는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손



해율 추이 등 보험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험료 추가 인하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남부 지방에 집중 호우가 퍼부었으나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에 50여대에 불과했고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으나 피해 차량이 100여대에 지나지 않는 등 자연재해 피해도 거의 없는 편이다.

손보업계 일각에서는 손해율 개선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할 수밖에 없지만 인하 시기를 놓고 '선거용'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예보, 회수 못한 공적자금 62조원

6월말 회수율 44% 불과

예금보험공사가 회수 못 한 공적자금이 6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517개 부실 금융기관에 110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해 49조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공적자금 회수율은 44.2%에 불과하다.

2003년 만들어진 예금보험기금은 저축은행의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기준 5조2203억원의 누적 적자를 냈다.

올해 들어서도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이어지면서 저축은행에서만 2조4000억원이 부실화돼 예금보험기금 누적 적자가 6월말 현재 10조2천억원까지 확대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료 적립을 위해 2014년부터 차등보험료율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차등보험료율제는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저축은행의 건전화를 통해 예금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예금보험료율을

7월에 0.4%로 인상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2009~2011년에 부실저축은행으로부터 계약 이전받은 가교저축은행인 예나래·예솔·예쓰의 제3자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수자산부를 신설해 특수목적법인(SPC) 주주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등 신속한 채권보전조치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후 영업정지된 부산계열 저축은행 등 19개 저축은행의 특수자산 7조6000억원에 대한 매각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 9월 재개될 듯

광주 북구의회, 오늘 임시회 열고 조례 개정

광주 북구의회가 31일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

조례 개정에 나선다. 북구의회는 31일 오전 제19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북구 대규모점

령에 부합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대형마트 등에 월 1~2일 이내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고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사이 영업시간 제한을 할 수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북구 내 대형마트 2곳과 SSM 9곳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



'하이트진로 나눔 참이슬 봉사단' 5기 단원들과 새롭게 구성된 6기 단원들이 최근 광주그랑시아웨딩홀에서 수료식과 발대식을 가지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하이트진로 제공>

“지역사랑은 계속 됩니다 주욱~”

하이트진로 봉사단 6기 발대식

하이트진로(주)(대표 이남수)가 운영하는 '하이트진로 나눔 참이슬 봉사단'은 최근 광주 그랑시아웨딩홀에서 광주지역 주요대학 남·여학생 45명으로 구성된 5기 단원들의 봉사활동 수료식과 새로운 남·여학생 46명으로 구성된 6기 단원 발대식을 가

졌다. 지난 1월부터 활동을 가진 5기 단원들은 매일 2회씩 광주전 정화활동, 무등산 등산로 정화, 폐밀리 전문요양원, 퇴임 복지재단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6개월간의 봉사활동을 마쳤다. 6기 단원들은 7월부터 12월까

지 활동을 하게 된다.

'하이트진로 나눔 참이슬 봉사단'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봉사단원을 모집하며 (사)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매월 2회 복지시설, 독거노인 도우미 봉사 등 주요 복지시설 봉사활동과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신보 보증금 1조원 돌파

창립 11주년을 맞은 전남신보보증재단(이사장 이계연)은 지난해 1월 보증금급 5000억원을 돌파한 이래 2년 6개월 만에 1조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도내 유일한 소상공인 보증전문기관인 전남신보는 지난 2001년 설립 후 11년간 총 6만2472개 업체에 1조원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보증금급 1조원은 전남지역 11만 개 사업체중 40%가 보증서비스 혜택을 누렸고, 업체당 약 1600만원의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2만6469개 업체 2271억원)과 농수산물 생산·유통·가공업체에 대한 보증(6170개 업체 1094억원)을 적극 실시해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했다.

이계연 전남신보 이사장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성공 도우미로서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신보보증재단은 7월 현재 기본재산 960억원, 보증잔액 3590억원으로 안정적 보증지원을 실현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

금융노조 파업 연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어 파업을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올해 총파업 핵심 사안 가운데 3대 핵심 사안이 해결돼 파업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농협 노사는 이날 오전 자율성 확보와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단합을 체결했다.

금융노조 성낙주 대변인은 "대학생 무이자 학자금 지원, 채용 확대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채용 금지 등 요구에 사용자 측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언제든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보배 '미녀궁사' 양궁일장의 꿈 금빛 신화가 되다!



기보배 선수 2012런던하계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